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5.3.3.(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7141 / kelly@kccla.org	담 당 자	Kelly Che

서울 국립극장의 다양한 우수 공연작, LA에서 감상한다

- 3월 20 부터 문화원 아리홀에서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콘텐츠 4 편 상영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Celebrating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



7pm at KCCLA Ari Hall



Mar. 20



Apr. 24



May 29



Jul. 10

- ▶ 공 연 명 :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국립극장 시리즈
- ▶ 내 용 :
 - 2025년 3월 20일 (목) 7:00 pm '귀토: 토끼의 팔란' (창극)
 - 2025년 4월 24일 (목) 7:00 pm '가무악칠채' (무용)
 - 2025년 5월 29일 (목) 7:00 pm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 콘서트 (음악)
 - 2025년 7월 10일 (목) 7:00 pm '몽유도원무' (무용)
- ▶ 장 소 : 문화원 아리홀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 주최/후원 : LA한국문화원 / 예술의 전당
- ▶ 예 약 : www.kccla.org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7141 공연담당 Kelly Che

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한국의 국립극장(NTK)과 공동으로 3 월부터 7 월까지 4 차례에 걸쳐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 국립극장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 예술의전당(SAC)의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남가주에 소개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국립극장’의 수준높은 우수 작품들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상영회는 3 월 20 일을 시작으로 4 월 24 일, 5 월 29 일, 7 월 10 일 네 차례에 걸쳐 국립극장의 매력있고 격조높은 공연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월 20 일 (목) 7:00 pm ‘귀토: 토끼의 팔란’] - 상영 시간 142 분

판소리 ‘수궁가’를 창극화한 작품으로 ‘수궁가’ 중에서도 토끼가 육지에서 겪는 갖은 고난과 재앙인 ‘삼재팔란(三災八亂)’에 주목해 토끼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다사다난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여기에서 희망을 찾자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국립창극단의 대표 스타이자 국악 아이돌로 불리는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열연하며, 명무 공옥진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 ‘수궁가’ 속 각양각색 동물들을 단순하면서도 특징적인 안무로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4 월 24 일 (목) 7:00 pm ‘가무악칠채’] - 상영 시간 70 분

국립무용단의 <가무악칠채>는 농악에서 주로 쓰이는 칠채 장단을 활용해 우리 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칠채’는 농악 행진에 쓰이는 빠르고 현란한 장단으로, 한 장단에 징을 일곱 번 치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2018 년 초연 당시, 전통 장단과 한국무용을 세련된 감각으로 풀어낸 역동적인 무대로 “록 콘서트를 능가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 “한 번도 지루한 적 없이 신나고 유쾌하다” 등의 호평을 받았다.

[5 월 29 일 (목) 7:00 pm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 상영 시간 46 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는 국악과 가요를 접목한 조선팝 열풍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음악회다. 청소년 음악회 60 인조 국악오케스트라와 스펙터클한 영상과 조명이 어우러져 대중음악 콘서트를 방불케 하며,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이 97.2%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국악관현악의 정수를 보여줄 최지혜 작곡가의 '감정의 집'과 황호준 작곡가의 '이슬의 시간'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 BGM, OST 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소우주'를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관객들과 함께한다.

특히,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는 영상으로 마치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미러볼을 활용해 객석과 무대 전체를 별빛으로 수놓으며 시각적인 연출 효과를 내는 점, 장난감이나 다른 도구를 악기로 변신시켜 연주하는 장면 등은 단연 눈길을 끈다.

[7 월 10 일 (목) 7:00 pm '몽유도원무'] - 상영 시간 48 분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는 조선시대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모티브로, 현실 세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상 세계인 도원에 이르는 과정을 차진엽의 안무와 음악, 무대로 그려낸 작품이다. '굽이굽이'라는 의태어에 인간의 굴곡진 삶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생존의 노력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몽유도원무>에 출연하는 국립무용단원 아홉 명의 춤사위는 미디어아트·음악·무대·의상 등 모든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 절묘한 경지를 선보인다. 15 세기 안견이 한 폭의 산수화에 담아낸 당대의 풍류가 차진엽과 국립무용단에 의해 현재의 삶 속에서, 현대인의 멋과 운치로 새롭게 펼쳐진다.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작년 예술의전당 공연 실황 시리즈를 통해 받은 큰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명실상부한 국립극장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국립예술단체들의 수준높은 기량과 창작성을 함께 즐기고, 출연진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영은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사전 예약은 KCCLA 웹사이트 www.kccla.org에서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kelly@kccla.org 또는 전화 (323) 936-7141로 하면 된다. 끝.